

환경교육장으로서의 동물원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에 관한 연구

오세훈* · 이형숙**

*가천대학교 대학원 조경학과 · **가천대학교 조경학과

I.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환경교육은 아이들이 환경에 대한 바람직한 가치관을 형성하고, 현실 개선을 위해 실천하도록 교육하는 과정으로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포괄하여 전체적인 생태계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많은 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활동, 연구 등이 식물보호나 숲속활동 등의 내용에 편중되고, 동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멸종위기 동물보호 교육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백성희 등, 2008). 도시 아이들에게는 동물원이 동물을 접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므로, 아이들이 동물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인식을 갖도록 하는데 있어, 동물원의 교육적 역할과 이를 위한 동물원 환경 및 동물복지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아이들의 환경 인식변화와 행동변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중요성을 입증하고 있다. 미국 동물원/수족관 협회(AZA)의 연구에 의하면, 아이들이 동물원 방문을 통해 자연과의 강한 교감을 경험하며, 이러한 경험이 이후 자연보전에 대해 고민하고 실천하는 계기가 되고, 환경보전에 있어서 동물원이 매우 중요한 시설이라고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또한 동물원 기능을 단순히 희귀동물 전시로 생각하던 아이들이 동물원 교육 프로그램 후 동물교육이나 동물 종보전으로 인식이 변화하였다는 결과(장상규, 2007)는 아이들의 환경 인식변화와 행동변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중요성을 입증하고 있다.

그동안 환경교육을 위한 체험장에 대한 연구는, 주로 식물원(김수란, 2008; 채충락, 2002; 한경식, 2006), 수목원(김민정, 2004; 국립수목원, 2008), 학교숲(남궁은미, 2006; 김종미, 2007; 정현모, 2001) 등에 제한되었으며, 환경교육장으로서의 동물원 역할, 활용 및 연계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동물과 식물을 동시에 체험하고 교육할 수 있는 동물원의 교육적 가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동물원을 활용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한 기초연구로서, 유치원 및 초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장으로서의 동물원 이용현황, 교사들의 인식 및 만족도를 파악함으로써, 환경교육장으로서의 동물원의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II.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를 위하여 서울시 및 경기도에 재직 중인 유치원 교사 40명, 초·중등교사 107명 등 총 149명을 대상으로 2013년 10월부터 12월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 구성은 인구통계학적 특성, 동물 관련 교육현황, 동물원 방문행태 문항은 범주형 척도를 사용하였고, 동물보존 및 동물원에 대한 인식과 동물원 이용 만족도에 관련된 문항은 연속형 변수인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작성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교사들의 성별은 여자가 전체의 90.6%였고, 연령분포는 20대가 32.4%로 가장 많았다. 담당학생은 유치원생이 33.8%으로, 교육경력은 5년 미만인 32.0%로 가장 많았다.

III. 결과 및 고찰

1. 환경교육 현황과 동물원 방문행태

교사들이 자연보호 및 환경교육을 위해 주로 이용하는 곳은 자연(생태)학습장이 29.7%인 90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의 가까운 공원이 22.1%인 67명으로 그 다음이었다. 동물원은 15.5%인 47명으로 조사되었다. 동물보호 및 보존에 대한 교육방법으로는 시청각자료가 48.6%인 85명으로 가장 많았고, 현장체험도

표 1. 동물보존 및 동물원에 대한 인식

내용	평균 (표준편차)
멸종동물들에 대한 관심과 보존이 필요하다.	4.36 (0.938)
동물보존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4.48 (0.871)
동물원은 사회적으로 중요하고 필요한 시설이다.	3.70 (1.031)
동물원은 교육을 담당하는 곳이다.	3.50 (0.927)
동물원에서는 여러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3.46 (0.990)

33.7%인 59명으로 비교적 높게 조사되었다. 최근 3년간 동물원 방문횟수는 1~2회가 54.1%인 80명으로 가장 많았고, 없음이 34.5%인 51명으로 그 다음이었다. 동물원 방문을 하지 않은 이유는 접근성이 좋지 않음이 61.8%인 55명으로 가장 많았고, 충분하지 않은 교육프로그램이 16.9%인 15명으로 조사되었다. 동물원 방문 시 주요 교육형태로는 사육사 및 해설사에 의한 단체가이드가 35.4%인 52명으로 가장 많았고, 교사 인솔 하에 직접 설명이 28.0%인 41명으로 그 다음이었다. 동물원의 형식적인 실내의 교육프로그램과 학생들의 개별적인 자율학습은 12.2%인 18명으로 3순위로 나타났다.

2. 동물보존 및 동물원에 대한 인식

교사들의 멸종동물에 대한 관심과 보존의 필요성, 아이들에게 있어 동물보존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각각 4.36점, 4.48점으로 높게 조사되었다. 동물원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시설이라는 것에는 3.70점으로 조사되었으나, 동물원이 교육을 담당하는 곳이라고 생각한다는 문항과 동물원에서 여러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각각 3.50점, 3.46점으로 비교적 낮게 조사되었다.

3. 환경교육장으로서의 동물원 이용 만족도

교사들이 단체로 동물원을 방문할 때 만족하는 편이라는 문항에 대해 3.27점으로 나타났고, 동물원 방문으로 인한 교육효과

표 2. 환경교육장으로서의 동물원 이용 만족도

내용	평균 (표준편차)
단체로 동물원을 방문할 때 만족하는 편이다.	3.27 (0.843)
동물원 방문으로 인한 교육효과가 높다.	3.47 (0.850)
동물원은 자연보존 및 환경교육의 장으로 적합하다.	3.50 (0.891)
동물원 방문을 정규 교과과정과 연계할 수 있다.	3.59 (0.952)

에 대해서도 3.47점으로 보통 수준이었다. 동물원이 자연보존 및 환경교육의 장으로 적합하다는 문항과 동물원 방문을 정규 교과과정과 연계할 수 있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각각 3.50점, 3.59점으로 보통 수준이었다.

동물원 방문 시 가장 불만족하는 부분은 접근성이 좋지 않음이 44.8%인 73명으로 가장 많았고, 충분하지 않은 교육프로그램이 27.6%인 45명, 단체관람을 위한 편의시설의 부족이 19.6%인 32명으로 그 다음이었다. 동물원 방문을 활성화하고, 동물원을 통한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는 가방보관소, 단체 집합장소 등 편의시설의 개선이 40.0%인 66명으로 가장 많았고, 동물원의 교육 프로그램 확충 및 제공이 29.7%인 49명으로 그 다음이었다.

I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아이들의 자연보호 및 환경교육을 위한 환경교육장으로서 잠재력을 지니는 동물원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있어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달리, 이러한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동물원의 교육적 역할에 대한 인식과 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교사들은 동물원을 통한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교육을 위한 시설들의 개선과 동물원의 교육 프로그램 확충을 제시하였다. 미래의 환경교육과 종 보존의 중심으로 변화해 나가는 동물원이 그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경적 관점에서의 동물원의 물리적 환경개선과 교육프로그램 개선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들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1. 백성희, 금지현, 이용환(2008) 동물 이해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동물에 대한 태에 미치는 영향. 환경교육 21(3): 59-65.
2. 장상규(2007) 서울대공원 동물원 교육프로그램 효과 및 인식변화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 Falk, J., K. Bronnenkant, N. Deans and J. Heimlich(2007) Why Zoos & Aquariums Matter: Assessing the Impact of a Visit.